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4. 12.(월) / 총 3매 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도로관리과	담 당 자	• 과장 나웅진, 사무관 이민기, 주무관 박진용 • ☎ (044) 201-3917, 3916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1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2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선제적인 정밀조사로 땅꺼짐 위험도 대폭 낮춘다

- 20년 9월부터 6개월간 정밀조사·신속 조치...도로환경 안전성 제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‘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(空洞, 땅꺼짐/썩크홀)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“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”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.
 -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(포항, 경주) 지진,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‘18년부터 “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”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.
-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(시가지 인접구간, 지형상 사면 또는 하천을 접하는 구간, 연약지반 구간 등 631km)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- 주요 조사방법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차량형 GPR(Ground Penetrating Radar, 지표투과레이더)을 이용한 1차 조사
 -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,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.

②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한 2차 상세 조사

-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하였다.

③ 땅꺼짐 발생 구간 조치 결과

-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,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 - 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,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이민기 사무관(☎044-201-3917), 박진용 주무관(☎044-201-39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<조사 개요도>



<차량형 GPR>